

사막·초원과 사람들... 실크로드를 걷다



민병훈 작 '명사산의 낙타대열'

국립나주박물관 실크로드 사진전

삶·장인들·예술·역사유적·민족 등

6개 주제 나눠 8월 27일까지 소개

고대 중국상인들이 비단을 비롯한 무역품을 가지고 서역을 오가던 실크로드는 동·서양 정치·경제·문화를 이어주는 통로였다. 총길이는 6400km에 달하며 중국 중앙부에서 시작해 멀리 지중해 주변 나라까지 이어졌다. 한민족도 실크로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경주 신라 고분군에서는 유럽 대표 무역품이었던 유리그릇이 출토됐다. 고대 한반도에서는 투명한 유리 재질 그릇을 만드는 제조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실크로드를 통한 서역과의 문물 교류를 알 수 있는 증거였다.

국립나주박물관이 실크로드를 한눈에 살펴보는 전시를 연다. 27일부터 8월 27일까지 사진전 '사진 속 실크로드를 걷다'를 마련한다.

이번 전시는 사진을 통해 실크로드 핵심지대에 해당하는 중앙아시아 사막과 초원지대, 사막 등을 소개한다. 실크로드의 자연,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생생한 사진으로 살펴봄으로써 역사 속에서 동서 문명이 서로 만난 중앙아시아를 만날 수 있다.

이번 사진전에서는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역사와 삶, 자연과 문화를 크게 6개 주제로 구성했다.

제1부 '실크로드의 풍토와 삶'에서는 오아시스를 삶의 기반으로 사막 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초원에 기반을 둔 유목민들의 삶을 만나본다. 농경으로 살아가는 오아시스 사람들과 달리 유목민들을 목축을 생업으로 삼고 있으며 벽돌을 사용한 집과 이동식 천막 등 거주공간을 비교해본다.

제2부는 '바자르의 이모저모'다. 바자르는 '시장'이라는 뜻의 페르시아어로 오아시스 농경민과, 초원의 유목민을 이어주는 소통과 교류의 공간이다. 여러 가지 가게 풍경과 물건을 거래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소개된다.

제3부 '오아시스의 장인들'은 실크로드 삶에 필요한 도구를 제작하고 수리하는 장인의 삶과 모습을 담았다. 필요한 물건은 직접 만들고 또 물물교환이 이뤄지는 다양한 광방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제4부 '실크로드의 예술'에서는 동서 문물 교류의 중요 물품 가운데 하나였던 비단을 비롯한 다양한 직물을 제작하는 실크로드 사람들을 만난다. 또한 미술품 교류를 통해 새로운 예술을 꽃피웠던 실크로드의 역할을 조명한다.

제5부 '실크로드의 역사유적'은 오아시스 주변에 조성된 동서문화 교류의 흔적과 지역의 고유한 성격을 전시한다. 불교 석굴사원, 이슬람 사원 등을 비롯해 사막 한 가운데 세워진 동양식 기와 건물 등을 통해 옛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본다.

제6부 '실크로드의 여러 민족'에서는 9세기 후반 이후 투르크계 민족의 중앙아시아 대이동과 아리안계와의 공존이 가져온 결과를 알려준다. 투르크 민족은 몽골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이슬람 문화를 전파하는데 일조한다.

후에 오스만제국을 형성해 유럽을 넘보는 강대국으로 성장한다. 현재의 이란, 인도의 시조(始祖)인 아리아인들은 동쪽으로 진출해 알바니아, 독일 등으로 퍼져나간다. 필연적으로 만날 수 밖에 없는 두 민족은 투쟁이 아닌 공존을 선택한다. 오늘날 중앙아시아 민족의 모습에서 투르크, 아리안 문화를 살펴본다.

이번에 전시되는 사진은 중앙아시아와 동서교섭사 전문가인 민병훈 전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부장직 직접 촬영한 것들이다. 민 전부장은 지금까지 '유리, 삼천년의 이야기-지중해·서아시아의 고대 유리' 등 실크로드 관련 특별전을 기획했다. 문의 061-330-7829.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서양화가 박정희 서울서 30번째 개인전



▶'행복한 동행'

5~11일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양화가 박정희씨가 서울 인사동 가나아트스페이스에서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5일부터 11일까지 30번째 개인전을 연다.

박 작가는 이광주 재경광주전남향우회 부회장의 아내로, 10년 전 꿈을 찾아 늦깎이 나이에 서양화가로 데뷔해 현재까지 활발하게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2011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전 좋아했던 채송화를 그려 이희호 여사에게 전달하고 2014년 '이희호 여사와 박정희 자선바자전'을 열기도 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다양한 꽃을 소재로 행복한 인생을 기원하는 '행복한 동행' 시리즈 최근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 '그 곳에 가면'에는 흰색으로 그려진 꽃나

무, 연못가에 핀 수련, 물에서 노니는 오리 등이 등장한다.

'행복한 동행'은 꽃과 나무, 포도 등 과일, 집, 산 등 자연과 어우러진 인간 세상을 몽환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했다. 자연의 모습은 충만한 에너지를 풍기면서도 여딘가 고독함이 숨겨져 있다.

박 작가는 "캔버스는 마음의 거울이다"며 "맑고 고운 마음으로 자연을 캔버스에 담아 관람객들에게 행복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박씨는 한국미술협회 100인 초대전, 한·캐나다 현대미술작가 초대전 등 다수 단체전에 참여했고 서울시회의의장상, 무등미술대전 특선 등을 수상했다. 현재 필리핀 국립 EARIST대학교 교환교수, 시현회 회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2-734-2333. /김용희기자 kimyh@

극단청춘 연극 '절대사절' 무대



7~9일 예술극장 '통'

극단청춘이 제20회 광주 소극장 연극 축제 참가작인 연극 '절대사절'을 선보인다. 7일 오후 8시, 8~9일 오후 4시 광주시 동구 호남동 예술극장 통.

'절대사절'은 신문 구독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에서 소통의 부재가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하는지 보여주는 작품이다. 주인공인 주희는 남편과의 해외여행을 이유로 신문 구독을 중단한다는 뜻을 보급소에 전한다. 하지만, 보급소는 이를 무시하고 매일 신문을 넣으며, 보급

소 총무는 구독료를 받으려 주희를 찾아간다. 연극은 소통의 아이콘인 신문으로 시작되는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과 충돌을 그려냈다.

극단청춘은 1989년에 창단한 광주시 지정 전문예술단체이며 100석 규모의 소극장 '예술극장 통'을 개관해 연극의 대중화와 공연·문화 교류에 힘쓰고 있다.

티켓가격은 2만 원(일반), 1만 원(청소년)이며 관람은 극단청춘 카페(cafe.daum.net/cctheater)를 참조하거나 극단청춘(062-430-5257)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문재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여성재단 젠더포럼, 양성평등주간 정책포럼·체험부스 운영 내일 광주시청 시민홀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엄미봉) 광주센터포럼은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광주광역시청 시민홀 등에서 개최되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성평등 정책포럼과 캠페인, 전시체험부스 등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에서 광주여성재단 광주센터포

럼(이하 젠더포럼) 총5개 분과가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보육분과, 과학기술·생태환경분과, 다문화분과 등 3개 분과는 각각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노동분과와 청년여성분과 등 2개 분과는 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전시 및 체험부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생태환경분과(분과장 신말식)는 이날 오전 10시 시청 18층 세미나실에서 김성환 광주테크노파크 부장, 김은희 전남대 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포럼 '여성과학기술인 일자리 창출'을 진행한다. 또 다문화분과(분과장 김혜경) '광주시

다문화정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김용집 광주시 의원, 한신에 북구다문화센터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포럼을 열어 교육·보육분과(분과장 이경영)는 '가족문화 성평등 정착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한다. 문의 062-670-0532. /전문재기자 ej6621@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테라스에서 즐기는 치맥한잔!!

오늘은 치킨과 맥주가 만나는 날

포장가능!!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